

‘15.5’계획 건의 요점

중국공산당 제 20 기 중앙위원회 제 4 차 전원회의가 2025년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과 실물경제 기반 강화 제시

전원회의는 ‘15.5’계획 기간의 중점업무를 포치,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과 실물경제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 경제 발전의 초점을 실물경제에 두고 지능화, 녹색화, 융합화 방향을 견지하며 제조강국, 품질강국, 우주강국, 교통강국, 인터넷강국 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적정 비중을 유지하고 선진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서비스업의 고품질·고효율 발전을 촉진하여 현대

화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기술 자립자강 및 신질생산력 발전 견인 요구

전원회의는 ‘15.5’계획 기간의 중점업무를 포치, 고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다그치고 신질생산력 발전을 견인할 것을 제기했다.

새 라운드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역사적 기회를 틀어쥐고 교육강국,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을 총괄하며 국가혁신체계의 전반적 효능을 향상시키고 자주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증강시키며 과학기술 발전의 최고점을 선점하여 신질생산력을 부단히 산생시켜야 한다.

원시 혁신과 관건 핵심기술 공략을 강화하고 과학기술혁신과 산업혁신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며 교육, 과학기술, 인재 발전을 일괄 추진하고 디지털중국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해야 한다.

/ 중국조선어방송넷

조선, 김영남 장의식 국장으로 거행



조선중앙통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 김영남의 장의식을

11월 5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거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장 의식장에는 조기가 드려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의장대가 정렬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당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성, 중앙기관, 무력기관의 일군들, 고인의 유가족들이 장의식에 참가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영결식은 신미리에 국렬사릉에서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영결식에 참가하였다.

김영남은 3일 서거했다. 향년 97세이다.

/ 신화넷

《남경사진관》, 한국 200 여개 영화관서 상영



11월 5일, 《남경사진관》이 한국에서 상영을 시작했다.

/ 중앙방송중국

중국 영화 《남경사진관》이 5일 한국 주요 도시의 200 여개 영화관에서 정식 상영을 시작했다. 남경대학살을 역사적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한국 관객들의 강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5일 저녁, 서울 명동의 한 영화관에서는 상영 내내 흐느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은 무거워 표정으로 오래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서울 시민 이대현은 신화사 기자에게 ‘력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영화 끝부분의 대목에 깊이 공감한다며 “우리가 잊어버리면 비슷한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 영화를 기꺼이 추천하겠다고 “비슷한 역사를 겪었기 때문에 보고 나니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양혜민은 “일찍부터 이 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 한국에서 상영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예매를 했다.”고 전했다.

《남경사진관》 한국 배급사 다세인소프트 수석집행관 김남희는 “영화는 제작 수준이 높고 대하살에 대한 묘사가 매우 진실하고 섬세하다.”고 말했다.

/ 신화넷

90 후, 뉴욕 시장 당선... 미 정계에 ‘새 바람’?



11월 4일, 지지자들이 미국 뉴욕의 한 투표소 밖에서 후보 출마의 선거 포스터를 들고 있다. / 신화넷

미국 뉴욕시선거위원회가 4일 발표한 뉴욕 시장 예비 선거 결과에 따르면 올해 34세인 뉴욕주 하원 의원 출마의 마마다니가 당선됐다. 그는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 시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진보파’인 마마다니는 우간다에서 태어난 90 후 인도계 무슬림이다. 분석가들은 마마다니가 민생정책과 특별한 신념으로 당선된 것은 생활 현황과 민주당 기성세력에 대한 뉴욕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마다니의 당선으로 최근 침체됐던 민주당에 희망을 안겼지만 정책 실행 단계에서는 여전히 여러 장애 요인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암말’의 돌풍

7세 때 가족과 함께 뉴욕으로 이주한 마마다니는 미국 보든 칼리지에서 아프리카 연구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018년에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그는 부동산 건설티브로 일하면서 대출 위기를 해결하고 주택 압류를 피할 수 있도록 뉴욕 퀸스지역의 저소득가정을 도왔다. 그는 ‘매일 리익만을 추구하는 은행들과 거래했던 경험’이 자신의 정치 입문 계기가 됐

다고 말했다.

마마다니는 2020년 뉴욕주 하원 의원에 당선된 후 두차례에 걸쳐 재선에 성공했다. 올해 6월, 그는 예상을 깨고 정치 자본이 풍부한 전 뉴욕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를 제압하며 뉴욕 시장 민주당 후보로 지명됐다. 이후 쿠오모가 무소속 후보로 선거에 출마하면서 마마다니, 쿠오모 그리고 공화당 후보 커티스 슬리바 삼자 구도가 형성됐다.

민주당 ‘진보파’인 마마다니는 경선 당시 연방 상원 의원 버니 샌더스 등 좌파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최근에는 전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뉴욕주 주장 캐시 호쿨, 연방 하원 민주당 렉스 하킵 제프리스의 지지를 받았다.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11월 1일 마마다니와 전화통화를 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민주당 ‘거물’들의 등장은 마마다니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었는바 그의 지지율은 계속 선두를 달렸다.

슬리바 후보의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등 공화당 인사들은 마마다니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온건파 민주당원’인 쿠오모를 지지하며 슬리바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러번의 설득에도 실패하자 트럼프는 직접 쿠오모에 투표할 것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했지만 결국 마마다니가 약 9% 포인트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세가지 당선 요인

분석가들은 마마다니의 당선 요인으로 정책의 적절함, 배경의 장점, 상대의 약점 이 세가지를 꼽는다.

첫째, 그의 주장은 뉴욕 시민들의 가장 시급한 요구에 부응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 시민의 4분의 1이 주거와 식품 같은 기본 생필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부동산 웹사이트 ‘주방이’의 자료에 따르면 6월 뉴욕시 중위(中位数) 월세가 4,000달러를 돌파, 전년 동기 대비 5.3% 상승했다. 마마다니는 선거에서 ‘생활 부담 완화’ 방안을 내세워 치솟는 생활비 문제 해결을 표명,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무료 보육, 무료 대중교통, 월세 동결, 서민 주택 신축, 공영 식품점 운영 등을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그가 근로 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지지를 얻도록 했다.

프랑스 청년, 일본서 일본군 중국침략 사진전시회 개최



프랑스 청년 마르쿠스 드레츠는 10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마지막 속죄’ 사진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에서는 그의 외할아버지 로저 피에르 로렌스가 생전에 수집한 수십점의 역사 사진 복제본과 일부 원본을 전시하여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상해를 폭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한 만행을 고발했다.

26세의 마르쿠스는 프랑스의 영어 교사이다. 2021년, 마르쿠스는 외할아버지의 차고에서 이 사진들을 발견했다. 전시회 현장에서 그는 <전쟁으로 파괴된 생명>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 사진은 내가 사진들로 가득찬 서류 가방을 열었을 때 처음 본 사진이다. 참혹한 광경에 놀랐다.”고 말했다.

올해 8월, 마르쿠스는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수집한 618점의 역사 사진을 상해송호항전기념관에 기증했다.

/ 신화넷

◀ 마르쿠스는 일본에서 일본군 중국침략 사진전시회를 개최했다.

/ 제로만보

